

순천만국가정원, 방송·셀럽 찾는 촬영 명소 '인기'

별도 연출 없이 완성도 높은 장면·자연·공간 콘텐츠 '자연 기반 로케이션' 방송·영화·뮤직비디오 제작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최근 방송·뮤직비디오·영화 촬영지로 잇따라 선택되며 '대한민국 대표 로케이션 정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순천시에서 따르면 프랑스정원에서는 여자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되며 감각적인 영상미를 담았고, 여행 프로그램 촬영에서는 봄꽃이 만개한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순천의 봄을 소개했다.

한국정원에서는 사극 영화 촬영이 이뤄지며 전통미와 자연미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처럼 순천만국가정원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영상 콘텐츠가 선택하는 '스토리형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전통정원까지 다양한 공간 구성을 갖춘 국가정원은 하나의 장소 안에서 서로 다른 분위기와 시대를 연출할 수 있어 방송·영화·뮤직비디오 제작자에게 높은 활용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계절마다 변화하는 꽃과 자연경관은 별도의 연출 없이도 완성도 높은 장면

을 구현할 수 있어, 최근 콘텐츠 제작 트렌드인 '자연 기반 로케이션'과도 맞물리며 촬영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자연과 공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곳이다"며 "방송과 영화, K-콘텐츠와 결합해 정원의 가치를 확장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치유와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서, 최근에는 '정원지유'와 '가든노믹스'를 기반으로 관광·경제·문화가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 네덜란드정원

보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선제 대응 통합 TF 추진단 회의서 신규사업 38건 중점 논의

보성군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TF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합특별시 체제하에서 보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 통합 TF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구성됐으며, 회의에서는 총 4개 분야 38건의 신규사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분야별로는 행정·문화관광 9건, 복지·교육 6건, 지역개발·환경 11건, 농업·수산 12건이다.

특히 광역 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핵심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주요 과제로는 읍포·보계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경전선 폐선 부지 활용 역사문화 랜드마크 조성, 보성 차(차)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



성, 주암호 권역 햇빛 소득 마을 조성 및 갯벌 연금 도입,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및 중남부 광역생활권 공동사업 운영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해 통합 추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남, 광주 통합은 보성군이 남해안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장흥진균류바이오센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고도화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 개발 유망미생물 기반 발효 적용 '임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

장흥군이 진균류 발효기술을 활용한 소재 개발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버섯산업 연구원 진균류바이오센터는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 개발(R&D)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불가사시나무 열매와 토종다래 열매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원료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 소재화를 통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진균류바이오센터는 효모, 유산균, 버섯균사체 등 유망 미생물 기반의 발효기술을 적용해 원료 소재의 기능성 성분을 고도화하고, 저분자화 및 신규 대사산물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산업화와 연계 가능한 차별화된 소재 개발을 중점적으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진균류바이오센터는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 개발(R&D)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연구기관인 전남산림연구원과 경제대학교는 원료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생리활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임가 소득 증대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균류바이오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들과 함께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고 소재 조달 계획, 연구개발 추진 전략,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균류바이오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가연구사업을 통해 산림자원의 기능성 소재화와 산업화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진균류 발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소재 개발을 통해 전남지역의 임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곡성, 원에 특화단지 공모 선정

곡성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6년 신소득 원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신소득 원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유망 원에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단지를 조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9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청년농이 참여하는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규모화·조직화된 특화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블루베리는 곡성군이 중점 육성해 온 특화작목으로, 그동안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 중심의 공선출하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확보해 왔다.

특히 생산기반 확충과 더불어 공선출하를 통한 유통망까지 갖춘 점은 이번 공모 선정 과정에서 곡성군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원에산업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군은 앞으로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블루베리 생산기반 확충과 공선출하 중심 유통체계 강화,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곡성을 대표하는 원에산업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여수, '남도 여행객 숙박할인 이벤트' 추진

최대 5만5000원 할인 혜택

여수시는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와 광주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여수시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매일 최대 3박까지 총 12만원 한도 내에서 숙박요금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용 방법은 전남 관광플랫폼(JN TOUR)을 통해 로그인 후 주소를 확인하고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숙박요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일 경우 1만5000원의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참여 대상자는 전남도와 광주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관광객으로, 전남 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여수시 숙박업소를 이용 시 금액별 숙박료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관광과(061-659-386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케이블카



담양 고비산 산벚꽃제

함평 나비대축제

"이번 주말 어디 가?" 광주 근교 봄축제로!

내일 담양 산벚꽃·나주 한수제 시작 '꽃의 향연' 본격화 함평 나비대축제·담양 대나무축제 등 5월 초까지 열기

봄꽃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광주 근교 전남지역 지자체의 축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벚꽃과 유채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을 앞세운 지자체들의 나들이객 맞이 준비가 분주하다.

광주 인근 담양군에서 먼저 소식을 알리는 축제는 4일 금성면 외추제 일원에서 열리는 산벚꽃축제다. 올해로 2회째, 담양의 숨은 명소인 고비산 산벚꽃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주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1시 개막식에 이어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돼

있다. 벚꽃 천연비누 만들기, 꽃누르미 체험, 떡메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같은 날 나주에서도 벚꽃 축제가 열린다. 저수지와 벚꽃 터널이 어우러진 풍광을 자랑하는 한수제를 배경으로 한 벚꽃축제다. 이번 축제 주제는 '벚꽃 모아 봄'. 나주시립합창단 공연과 라틴댄스 무대가 흥을 돋우고, 체험 부스와 포토존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봄꽃야행'을 주제로 한 화산 벚꽃 축제는 17일부터 26일까지 꽃길길 일원

에서 열린다. 약 500만 주의 꽃과 20여종의 조화류가 조성된 대규모 정원형 공간에서 진행된다. 야간 경관 조명은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는 이날 말부터 5월 초까지가 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다. 함평군은 이 기간 동안 KTX 열차의 함평역 임시 정차를 활용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담양대나무축제도 다음달 1일 개막, 5일까지 열린다. 담양군은 야간 경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체류형 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대숲 영화관, 드론 라이팅쇼,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화순=고훈성 기자 poi@gjdream.com

고흥, '사슴골 쌈지마켓' 개최

고흥군은 4일 도양읍 쌈지소공원에서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과 연계해 '녹동 사슴골 쌈지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공예품,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군은 이를 통해 드론쇼 시작 전 도양읍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특별행사로 마련한 '우리동네 빵축제'는 고흥 제빵사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빵을 선보이고 홍보하는 자리로, 이번 플라마켓에서 아쉽게 준비한 대표 콘텐츠다. 지난해 10월 두 차례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녹동 사슴골 쌈지마켓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마무렸다.

군은 올해도 도양읍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플라마켓 행사를 드론쇼와 연계해 운영한다. 행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동 사슴골 쌈지마켓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